

3장 교의신학의 토대들

? 신학과 종교는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신학은 종교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라서 자기만의 출발점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성경·성령이라는 삼위일체적 세 원리다. 바깥 세계와 우리 생각의 법칙을 같은 로고스가 지으셨기에 참된 앎이 가능하다. 종교도 계시라는 객관적 면과 경외·신앙이라는 주관적 면이 하나로 묶여 있다. 종교를 지식·의지·감정 하나로 줄이거나 인간 욕구에서 기원을 찾는 시도는 실패한다.

용어 먼저

제1원리(principia)	한 학문이 기대는 가장 밑바탕의 근거이자 출발점
본질의 원리	신학이 존재하는 근거이신 하나님 자신
외적·내적 인식 원리	앎의 바깥 통로인 성경, 안의 통로인 성령
로고스	만물을 지으신 말씀, 곧 성자 그리스도
실재론	바깥 세계와 보편적 질서가 실제로 있다고 보는 입장
이성주의·경험주의	앎의 근원을 각각 이성과 감각 경험에만 두는 견해
절대 의존 감정	술라이어마허가 말한 종교 본질, 전적으로 기대는 느낌

구조도 · 교의신학 토대의 논증 흐름



핵심 주장

1. 신학은 철학이나 비교종교학에 기댈 수 없고 계시에서 출발한다.
2.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 성경은 바깥 통로, 성령은 안의 통로다.
3. 이성주의는 바깥 세계를 앎고 경험주의는 정신을 물질로 만든다.
4. 감각에서 앎이 시작되지만 지성은 능동적으로 보편을 붙잡는다.
5. 종교에서 객관적 계시와 마음의 신앙은 구별되지만 나뉠 수 없다.
6.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 사람은 가장 자유롭다.
7. 종교를 평가하려면 참과 거짓을 묻는 진리 질문을 피할 수 없다.
8. 참된 종교는 전인을 요구하되 바른 지식이 먼저 온다.

성경 근거

롬 11:36	신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함
마 11:25-26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
요 1:3	로고스가 우리 바깥의 세계를 지으심
시 4:6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분은 하나님뿐
요 14:6	신학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집중됨
히 11:6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믿어야 함
마 11:27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통해 자신을 알리심

오해 → 바른 이해

× 종교의 본질은 감정이다(술라이어마허)	✓ 감정은 중요하나 수동적이며, 종교는 전인을 요구한다
× 종교는 결국 도덕적 행위다(칸트)	✓ 종교는 도덕의 토대이며 하나님께 대한 의무다
× 종교는 두려움·욕구가 만든 환상이다	✓ 그런 신은 인간의 종일 뿐, 참 하나님은 실재하신다
× 종교 밖 중립 시점에서 종교를 비교할 수 있다	✓ 중립 시점은 없고 진리 질문은 피할 수 없다

“신학과 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위에 서 있다.”

☺ 나는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자유로 느끼는가, 속박으로 느끼는가?

☺ 내 신앙은 느낌 중심인가, 말씀의 바른 지식에 뿌리내렸는가?

빛다방 학습 노트 ·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요약한 것입니다(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
[youtube.com/@빛다방](https://www.youtube.com/@빛다방)